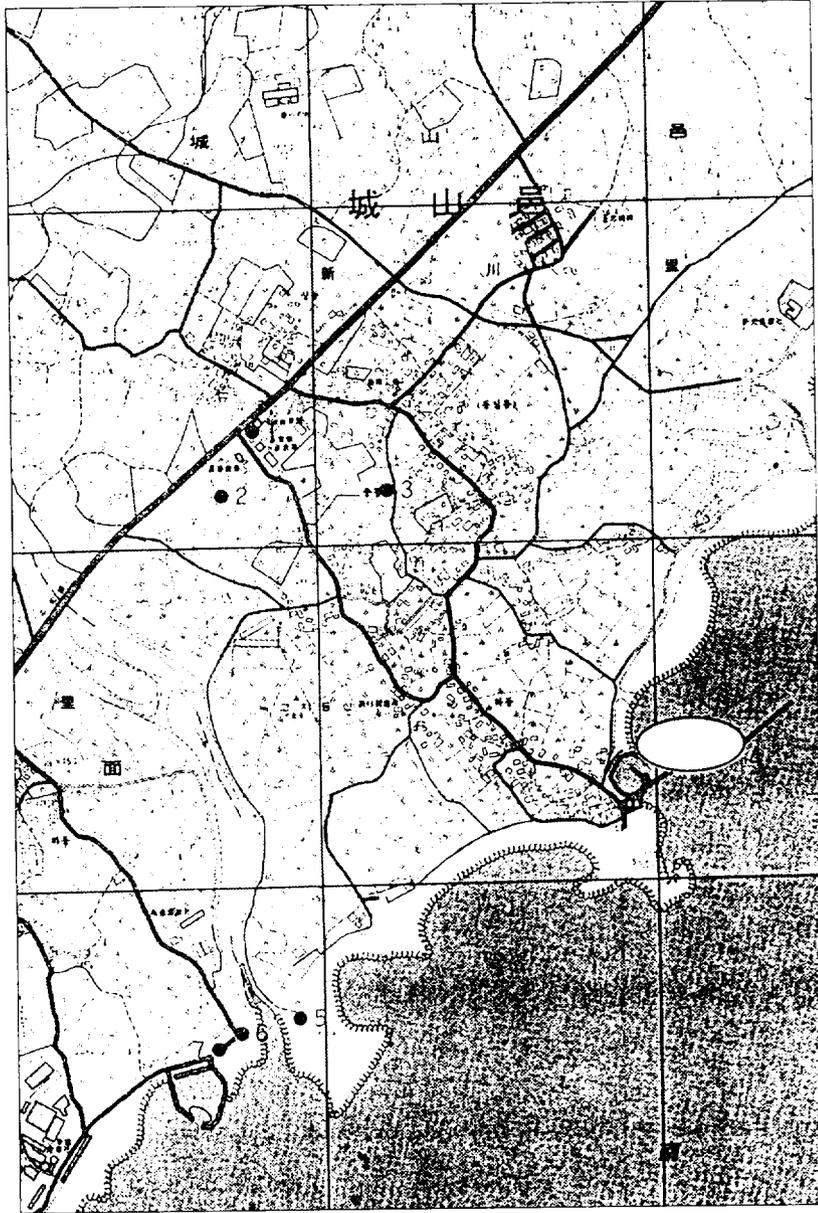


■ 연지약술조사보고

南濟州郡 城山邑 新川里

2003년 6월 28일 ~ 6월 30일 조사

● 사회 배경 / 방언 / 민요 / 설화 / 신앙 ●



社會背景

차례

- | | |
|----------|----------|
| 1. 사회 배경 | 3. 역사 배경 |
| 2. 자연 환경 | 4. 지명 |

1. 사회 배경

신평과 신천 두 마을은 좌면 또는 정의면 시절부터 같은 면에 속해있었다. 근대에 와서 같은 학구, 같은 선거구가 되면서 서로 가깝하게 지내왔으나 이상하게도 통혼은 하지 않아 인척관계는 깊지 않다. 본읍인 고성과는 12km이지만 표선과는 5km밖에 되지 않아 성산보다는 표선에 가깝다. 표선과의 거리가 보다 가까워서 5일장을 같이 보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은 성산읍이지만 생활권은 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표선면에서는 자기네 면으로 편입시키려 한다고 한다.

신평리는 산과 들을 등졌으나 신천리는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그런지 기질은 두 마을이 조금 다르다. 신평리는 교학에 힘쓰며 예양을 숭상하고, 신천리는 생산에 힘쓰고 과감한 기상이 있다. 신평리에서는 노인들이 '가법은 홍학과 무농이라사 해주'라고 자주 말한다. 즉 집살림을 하여 나가는 데는 교육에 힘쓰고 농사에 부지런하는 것을 가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예나 지금

이나 부자보다는 학자 문인이 많다. 옛사람으로는 오진조, 오익효, 오장현, 김종립 등이 있고, 현대에도 김공천 시인이 있다. 용희 2년에 삼달 난산 두 마을과 연합하여 책접을 창설한 일도 흥학의 일면이라 할 것이다.

신천리는 토지가 척박하고 협소한 편이지만 해초를 비료로 이용하여 보리 생산을 많이 했고, 고구마 전성기에는 일찍이 종자까지 개량하여 '붉은 감저'로 대치한 것은 진보된 생각이었다. 바닷가의 생수를 이용하여 전분공장을 건설한 것도 생산에 주력하는 일면이다. 바다와 생활이 직결되다시피 하여 가족 중의 해녀가 '상군'이 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고, 미역을 동리에서 제일 많이 따내면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또 해녀들은 대마도, 청진, 구룡포, 기장, 진도, 완도, 해남, 속초 등 안 다녀 본 데가 없다. 대마도에서 나서 국민학교까지 다니다가 광복과 함께 돌아온 아주머니도 있다.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모두 고향으로 생각하여 몇 년씩 살다 돌아오는 게 다반사였다. 이것이 모두 과감하고 현실적인 기질의 발로인 것이다. 해녀들이 육지로 나갈 때 그들을 인솔해서 풍선을 부리던 선주 거의가 마을 유지임을 봐도 왕성했던 당시 짐작케 한다. 풍선에 타고 대마도나 청진 등지를 다녔다면 거짓말 같지만 사실 그러하였다. 지금도 산증인이 여러 분 살아계시다. 출육했다 돌아오는 길에 육지의 진보된 문물도 도입했을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현종언씨 같은 분은 경상도 풍기까지 한학 수학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현재도 신천리 보유 어선이 16척이어서 인근 부락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웃 마을인 하천리 신산리가 어업에 힘썼기 때문에 경쟁심도 작용한다 하겠다.

2. 자연 환경

개로천은 한라산 상류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흐른다. 이 천을

달리 진손천, 화천, 풍천, 천미천이라 하기도 한다. 여러 번 구비들면서 교래, 콩불리는목, 구렁팔 세 마을을 낳았고 영주산 서쪽 뒤편을 힘차게 잘라 정의음성을 감고 돌아 오백년간 정의고을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다시 흘러 냇끼 세 마을을 배춘시켰다.

내를 따라 마을이 생겨나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 내와 같이 근원이 멀고 또 한 읍과 여섯 마을을 끼어 흐르는 내가 제주 섬 안에 그리 흔치 않다. 하천의 맨 하류에 배춘되어 있어 냇끼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내는 성산읍과 표선면의 경계가 되기도 하고 젓줄이 되기도 한다. 개로천을 뒤에 두고 정의고을의 남산이 둥그렇게 솟았다. 남산의 일맥이 높고 낮고 들어가고 나가고 굽이져 오다가 '주군디머들'에서 내맥이 딱 그치면서 양쪽으로 날개를 벌려 신평리 마을을 꺼안았다.

신평리는 '족새모루', '던데못'이 청룡이 되고 장자못동산이 백호가 되며 곱주리동산이 안산이 된다. 달산 세 봉우리를 조산으로 하여 설촌되었기 때문에 유향양촌이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 남쪽 가림에서 다시 한맥이 돌출하여 '솔대왓'을 지나 한 굽이 넘어서 넓은 남해 바다를 명당삼고 마을 안의 고산동산을 조산으로 하여 '백응왓', '탈왓'의 평야를 끼고 신천리 마을이 형성되었다.

고산동산을 등에 지고 천미연대가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연대가 신천리 설촌의 효시가 된다. 남쪽 바다로 들어오는 왜적을 막아야 될 요충이므로 연대를 쌓았고, 연대에서 왜구를 살피려 하니 자연적으로 연대 가까이에 사람들이 살아야 살피기가 편했다. 처음에는 연대를 지키는 병사들이 가고 오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살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다른 마을과 달리 본향당이 바닷가에 있는 것을 보면 예로부터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옛날은 해산물 값이 별로 높지 않고 또 값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해산물로 풍요를 누리지는 못하였다. 경내를 살펴 보면 남산의 남쪽 '송줄기', '도꼬마리'의 입야지는 우마

를 방목하거나 청초 밭에 지나지 않았다. '사전이'로부터 신평마을까지는 경작지이나 토질이 비옥하지 못하다. 대개 바다쪽으로 내려올수록 토지는 기름지고 추위도 덜해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토지의 값도 비싸다. 개로천의 서쪽이 토지가 비옥하다. 지금은 신평경이 아니지만 세부측량 이전에는 신평경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타면경이라는 관념이 없고 토지가 전부 신평리민의 소유다.

속칭 '아심선'에는 신평리 소유지도 있었으나 십여년 전 군소유로 이관되었다. 신평리의 동남쪽 '녹낭골', '예막드르', '오미' 지경은 비교적 경작할 만하다. 신천리는 바다가 넓어 해산이 풍부하다. 그래서 예로부터 상군 해녀가 많았다. 신평리 앞바다인 '들래왓까지 갔다 온 해녀가 있다. 바다 동쪽에서부터 뒷마을까지 연안과 연해에 모두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것을 봐도 신천리의 옛 조상들이 얼마나 바다와 밀착되어 살아왔는가를 쉬 짐작케 한다. '동진여', '금택이여' 등 마을 바로 앞에 자리돔 어장이 있어서 예부터 수입을 높였다. 지금도 '금택이여 자리'는 유명하다.

신천리 경내의 면적은 그리 넓지 못하는데다 비옥한 편이 못되나 '백웅왓'만은 아주 기름진 문전 옥토이다. '너댕이'와 '탈왓' 평지가 비교적 넓은 땅이나 암반이 많아 장마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조를 주곡으로 할 때는 실농하는 수가 많았다. 고구마로 대작되면서부터는 별로 구애받지 아니하였다.

기후는 다른 인근 마을들과 비슷하다. 장마가 심하고 눈이 많이 오는 것이 특징이다. 조·산도를 경작할 때는 장마 때문에 매우 골치를 앓았다. 유월절 전후 삼일에 파종이 끝나 삼사일 후 조가 싹이 날 만하면 비가 계속 와서 종자묘가 썩어 버리기 일쑤였다. 눈이 내려 70~80cm까지 쌓일 때도 있어 고구마 종자 저장에는 불편이 있었으나 눈이 많이 쌓이면 보리는 풍작이 된다고 기뻐하였다. 의례 삼동이 되면 집안에서 멍석을 엮고 농구를 손질한다. 아녀자는 길쌈을 하여 집밖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다.

신평리는 농업과 축산에 적합하고 신천리는 농업과 어업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3. 역사 배경

(1) 마을을 세움

옛날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문헌이 부족하여 상고할 수 없지만 돌칼, 돌도끼, 고인돌 등 선사시대 유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선사시대에 이미 이 고장에 사람이 살았음을 추측케 한다. 그러나 완전한 부락 형태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조 세종 5년에 정의현이 현 성읍리로 옮겨지면서부터이다. 전설에는 현씨가 이 마을을 설촌하였다 하는데 허황된 전설은 아닌 듯하다. 신평과 신천에서 '선방터', '생개터', '선비장골', '선씨일뢰당' 등 현씨와 관련된 지명이 많고 또 신평리에는 현씨가 처음 살았다는 집터도 있다. 본촌을 설촌했으리라 추정되는 현한형은 출생연대를 알 수 없으나 그의 현손 현치운이 만력무인생이라고 묘비에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정의현이 성읍으로 옮겨진 뒤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선이방, 선비장, 성장터 등 지명에 거의 관직이 붙어 있었던 걸로 보아 현씨의 관리들이 퇴관하고 읍성과 가깝고 또 개로천에 식수가 풍부하여 차츰차츰 모여 살게 되지 않았는가 한다. 부씨, 변씨, 고씨도 살았던 흔적이 있다. 숙종 초에 오치원, 오계원 형제가 입주하였고 영조때 경신천 강씨가 입주하였고 또 영조때 경경주 김광수가 입주하였다. 그리고 조선 말엽에 최씨가 신천리에 입주하였으며 공산 김씨인 김한욱이가 입주함에 이어 임씨·홍씨·김해김씨·청주김씨가 입주하여 마을을 이루었다.

호수와 인구는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술할 수 없으나 광

무 8년의 기록인 『삼군호구가간총책』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마을	호 수	인 구		
		남	여	계
신평	55	213	242	455
신천	62	255	262	517

원래는 신평 하천 두 마을은 원래는 한 마을이었다가 고종 때 강학수 현감이 하천리를 분리시키고 속칭 '묵은가름'에서 현재의 위치로 부락을 옮겼다고 한다. 신천리는 마을 이름이 보여주듯 마을 형성이 늦게 되었다. 천미포란 때만 하여도 불과 5, 6호였다고 한다. 아마 천미포란을 겪고 천미연대가 외적 방어상 더욱 중요시되어 많은 군사를 주둔시킴으로 인하여 호수가 증가되지 않았는가 한다. 신평리는 오씨가, 신천리는 현씨가, 하천리는 강씨가 주성을 이루어 지금에 이르렀다.

(2) 마을 이름이 정해짐

신평, 신천, 하천 세 마을은 원래 내끼라 불리어졌다. '내의 끝 마을'라는 뜻인 듯하다. 문자로 기록할 때는 내의 끝이라는 뜻을 따서 천미촌, 혹은 천미리라 기록하였다. 이의 초초의 기록은 처서 오억령 묘비와 호장 강필번 묘비에 보인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는 곧 천미천을 말하는데, 천미천은 천미촌이 이루어진 후 마을 이름으로 인하여 다시 생겨난 이름이고 원래 이 내의 이름은 개로천, 진순내라 불렸었다.

조선왕조 초기에는 천미천의 동·서쪽에 몇 호씩 흩어져 살아 지금과 같은 집단부락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왕조 중엽으로 내려오면서 자연히 마을이 커지고 인구가 불어났다. 또 반상의 구별이 심

하여짐에 따라 향족과 토족이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향족은 내의 위쪽, 토족은 내의 아래쪽에 마을을 이루게 되어 내의 위쪽을 '웃내끼', 아래쪽을 '알내끼'라 부르게 되었다. 천미포란 이후에 천미연대 부근에 마을이 이루어져 '새로 된 내끼'라는 뜻에서 신천리라 부르게 되었다. 이 세 마을(신평, 신천, 하천)을 통틀어 지금도 노인들은 '내끼'라 부르고 있고, 신평리를 상천미라 부르는 사람도 많다. 하천리와 신천리는 마을 이름을 바꾼 일이 없지만 상천리는 순조 철종 연간에 당시 대학자인 오진조가 오장현의 패공고사를 따라 신평리라 고쳤고 고종말년에 마을을 둘로 나누어 신평리, 신평리라 부르다가 다시 합쳐서 신평리라 불렀다. 위에 적은 오진조의 문집에 정의풍촌이라고 적혀 있고 광무 8년에 기록된 삼군호구가간총책에는 신평리, 신평리, 하천리라 적혀있다. 융희 2년의 호적단자에는 신평리만 기록되고 신평리는 없다.

(3) 행정구역의 변경과 이입

이 고장은 원래 정의현에 속해있었고 광해군 원년에 면을 설치할 때 좌면으로 편입되었고, 단기 4286년 남군 성산면에 편입되게 되었다. 마을의 수입을 경민장이라 하여 이정을 맡아 보았고, 또 기찰장이 있어 방범 및 방어를 맡아 보았다. 융희 원년에 경민장이 구장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왜놈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아 다스린 뒤부터 기찰장은 없어졌다. 또 마을 안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을 영존위, 곧 영의 으뜸이라 높혀 부르고 모든 마을 일을 처리할 때 그에게 여쭙어 처리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마을 안 크고 작은 일을 거의 자체 내에서 해결하였다. 즉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는 일, 환난을 서로 도와주는 일, 서당을 열어 글을 가르치는 일, 농사를 때 맞춰 짓는 일, 해산물 채취를 금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캐는 일 등 모든 일을 경민장이 영존

위의 의견을 물어 처리하다가 구장으로 경민장이 바뀌어 부를 때부터 지금과 같이 이임의 일거리는 줄어들었다. 경민장 한 사람이 내끼 세 마을 일을 맡아 보았으나 후기에는 각기 경민장이 있었다.

(4) 남산 서쪽에 읍성을 옮기려 하다.

현 성읍리에 정의현이 옮겨온 후 20년째인 세종 25년에 현 신평경인 남산과 걸인봉 서쪽의 개로천 남변을 따라 읍성을 쌓으려 하였다. 읍성안에는 식수가 없어 5리 밖인 속칭 '시건이'에 와서 물을 길어가야 했기 때문에 물이 가까이 있는 그 곳으로 성을 옮기려 한 것이다.

요새는 식수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소홀히 생각하기 쉽지만, 삼일 간 굶어서는 살아날 수 있어도 물을 안마서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식수가 없는 성은 적이 3일간만 포위한다면 그 성은 자연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물 있는 곳으로 성을 옮기려 하였던 것이다. 안무사 정간이 이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채직되어 갔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 곳은 뒤에 남산을 등지고 옆과 앞에는 내가 가로 막혀 있어서 외적을 방어하기에 적절한 곳임을 지금에 봐도 쉬이 알 수가 있다. 육지의 유명한 성들은 모두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고 있다.

(5) 천미포란이 나다.

명종 7년 5월 왜선이 천미포 속칭 '구진개'에 쳐들어 왔다. 그러나 천미촌 세 마을(현 상천, 신천, 하천)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왜적들과 싸우는 한편, 이를 관에 급히 알렸다. 천미연대와 토산 봉수로부터 관군도 급히 나와서 앞을 막아 싸웠다.

날이 저물어 접전이 조금 멈췄다. 밤에 불을 발하고 관민들이 힘을 합쳐 해안을 지켰다. 왜적은 밤에 몰래 작은 배로 살그머니 서쪽

천미촌 하류로 상륙하였다. 다음날 접전에서 우리 관민이 왜병의 예리한 무기와 화총에 대적하기가 어려웠다. 적군은 상천리까지 쳐 올라왔다. 읍성까지 쳐들어올 기세였다. 다행히 본주의 원군이 도착하여 사진리에 진을 치고 우리 관민이 추격하여 더러는 사로잡고, 더러는 개로천으로 들어가 숨었다. 천미촌 백성들이 천미천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적은 더 버티지 못하고 달아났다. 조정에서는 적을 놓쳤다 하여 목사 김충렬을 체직시키고 본현의 김인 현감에게도 포상이 없어 백성들이 애석해하였다. 천미촌에는 포의로써 적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삼년간 감시의 은전이 내려졌다.

당시 왜적들은 무기가 날카롭고 화총이 있어 가까이 접전할 수가 없었음에도 우리 군사는 지세를 잘 이용하여 적의 총탄을 피하면서 잘 싸워 적을 무찌르고 당시 목사와 현감도 군사와 같이 야영을 하며 물리쳤다. 조정에서는 평상시 후망을 엄중히 하지 않은 까닭으로 적이 쉽게 상륙하였다. 이는 평소의 방비가 해이된 까닭이라 하여 적을 많이 사로잡고 격퇴한 공적이 많았음에도 포상함이 없고 오히려 책임을 물려 체직시켰다.

그러나 이 현에는 전선이 한 척 뿐이기 때문에 해전에서 적을 물리칠 수는 없었다. 이런 점을 살피지 못한 조정의 처사는 공정을 잃었다. 구진개, 사진리, 화공소, '추군머들' 등 이로 인한 지명이 지금도 전한다. 동왕9년, 같은 장소에 다시 왜적이 쳐들어 왔다. 이때에도 적1명을 잡고 왜적들을 물리쳤다.

4. 지 명

□ 개로천/ 천미천

- 위치 : 신천리, 하천리, 신평리에 걸쳐 이어진 큰 건천
- 유래와 현황 : 「개로천」은 길이 열리는 내란 뜻이고, 「천미천」

은 내의 끄트머리에 딸린 내란 의미이다.
이 내는 수많은 샘과 소와 우물과 봉천수를 거느
리고 있어 주변에 많은 마을이 생겨났다.
우레기물, 진물, 곱은소, 제석물, 뭉거니앞가름물,
가래기소, 정언이물, 화단이못, 던데못, 답다니물,
세통, 족새모루물, 너벽동산물, 사전이못, 독새기
못, 낭산망물, 갈외못, 가호나못, 오미물 등이 바
로 이 내에 있다.

□ 개발짜

- 위치 : 신천리 한동네 서쪽 약 250m 냇가
- 유래와 현황 : 이 연못의 지형지세가 마치 개발자국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예전에 남쪽은 여성전용, 북쪽은 남성전용 목욕장이었다.

□ 거먼이

- 위치 : 신천리 풍천초등학교 뒤
- 유래와 현황 : 기다란 골목이 「동철이왓」까지 약1km나 이어져 있는 길의 이름.

□ 고망난돌

- 위치 : 신천리 공동목장 바닷가
- 유래와 현황 : 커다란 바위에 둥그런 구멍이 뺨 뚫려있어 붙여진 이름.

□ 고척당

- 위치 : 신천리 ↔ 하천리 경계의 바닷가
- 유래와 현황 : 이 마을 포구 앞에 있는 당으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포제와 배가 출항할 때 무사 항해와 만
선을 비는 제를 지내는 곳이다.

□ 고타리뭇

- 위치 : 신천리 취락구조 동남쪽 500m 지점
- 유래와 현황 : 이 연못의 주변에 유독 고사리가 많이 나 이에 연유한 이름. <고타리>는 고사리의 변형.

□ 구신계/ 구진개/ 구진포/ 천미포

- 위치 : 신천리 동남쪽 바닷가
- 유래와 현황 : 이 바닷가 일대의 지형과 길이 워낙 험하여 귀신이 나온다고 붙인 이름이라는 설과, 조선조 때 왜구가 이 곳으로 쳐들어오니 관민이 힘을 합하여 물리친 데서 연유한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천미포」는 내 끝에 있는 포구라 하여 후에 붙여진 이름.

□ 내깍

- 위치 : 신천리 공동목장 ↔ 복돌 사이 바닷가
- 유래와 현황 : 바닷가를 깊게 파들어간 지대로 마치 내의 끄트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

□ 넓은빌레

- 위치 : 신천리 리사무소 동쪽의 바닷가
- 유래와 현황 : 이 바닷가 일대에 넓은 암반들이 깔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닥낭통이

- 위치 : 신천리 풍천초등학교 일대
- 유래와 현황 : 이 일대가 닥나무 숲이었던 데서 연유한 이름.

□ 닭은지

- 위치 : 신천리 935번지
- 유래와 현황 : 상동에서 「하천리」로 이어진 길인데 일부러 길을 내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도리뿌리

- 위치 : 신천리 포구 동쪽 500m 지점
- 유래와 현황 : 「넓은빌레」 근처의 바닷가 이름

□ 도리못

- 위치 : 신천리 취락구조 동북쪽 600m 지점
- 유래와 현황 : 연못이 있는 데를 돌아서 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도사리

- 위치 : 신천리 들판
- 유래와 현황 : 경작지 이름

□ 두둑밭

- 위치 : 신천리 933번지 일대
- 유래와 현황 : 두둑 위의 밭인 데서 연유한 이름

□ 마궁굴

- 위치 : 신천리 노인회관 앞 골목
- 유래와 현황 : 길이 막혀 있다고 하여 본디 <막은굴>이라고 했던 것이 변형되어 「마궁굴」로 불리워진다.

□ 망동산

- 위치 : 신천리↔신평리 경계 지점의 시천마장 입구
- 유래와 현황 : 이 마을에 있는 다른 동산보다 비교적 높은 동산으로 예전 마을이 공동으로 사냥을 하여 분육을 하던 시절, 망꾼들이 망을 보던 동산인 데서 연유한 이름

□ 문이머르

- 위치 : 신천리 현광옥의 공동묘지 근처
- 유래와 현황 : 「동철이왓」의 뒷길에서 「신평리」신작로로 이어지는 사이에 있는 얇은 능선을 일컫는 이름.

□ 배분밭

- 위치 : 신천리 하동 강영우 소유의 경작지
- 유래와 현황 : 밭에 큰 자갈 등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 밭갈이를 용이하게 할 뿐아니라 땅심이 깊어 농사가 잘되니 배가 부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배탕개

- 위치 : 신천리 취락구조 서남쪽 바다
- 유래와 현황 : 공유지의 이름

□ 복돌

- 위치 : 신천리
- 유래와 현황 : 바닷가로 내려가는 작은 들의 이름

□ 새기미

- 위치 : 신천리 812번지 일대

- 유래와 현황 : 바닷가의 이름

□ 선돌

- 위치 : 신천리 고망난돌 동쪽 20m 지점
- 유래와 현황 : 하늘을 향해 힘찬 자세로 솟아오른 길쭉한 바위가 마치 남근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 센동산

- 위치 : 신천리 하동 바닷가
- 유래와 현황 : 풍수지리설에 의해 이 동산의 정기를 받아 힘센 사람이 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솔대왓

- 위치 : 신천리 841번지 일대
- 유래와 현황 : 이 곳에 솟대를 세웠던 데서 연유한 이름

□ 쇠통밭

- 위치 : 신천리 서쪽 신평리 지점
- 유래와 현황 : 감귤원이 조성되어 있는 밭의 이름

□ 아골창

- 위치 : 신천리 리사무소 서쪽 100m지점
- 유래와 현황 : 설개천처럼 지형이 생긴 데다 골이 패어있어 어린 개천이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

□ 연디

- 위치 : 신천리 263번지 일대
- 유래와 현황 : 「천미연대」가 있어 연유한 이름

정의현 소속으로 동으로 「말등포연대」, 서로는 「소마로연대」, 「별포연대」에 응소하였으며, 별장 6명 직군 12명이 근무하였고 이에 종사하던 이들이 나중에 「신천리」를 설촌하는 일원이 되었다. 1973년에 <제주지방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되었다.

□ 지름돌왓

- 위치 : 신천리 들판 강태문 소유의 경작지
- 유래와 현황 : 이 밭에 잘디잔 자갈이 깔려있어 씨를 뿌리면 눌러주어 바람에 날아가지 않아 농사가 잘되므로 붙여진 이름

□ 진모/진몰

- 위치 : 신천리
- 유래와 현황 : 바닷가 이름

□ 칼도리

- 위치 : 신천리 고망난돌과 내깍 사이 바닷가
- 유래와 현황 : 바위가 칼날같이 날카롭게 생긴데서 연유한 이름 다른 국마장이 다 중산간 일대 즉, 위쪽에 있는데 비해 이 마장만은 바닷가 즉 아래쪽에 있다 하여 연유한 이름. 이 목장 아래가 바닷가인데 <팔운석용문동천>이라는 명승지가 있다.

□ 한동네

- 위치 : 신천리
- 유래와 현황 : 동네가 크다 하여 붙여진 이름

方 言

차 례

- | | |
|---------|-------------------|
| 1. 동물명 | 5. 기구명(농기구, 가재도구) |
| 2. 해산물명 | 6. 상태 |
| 3. 가족호칭 | 7. 의복 |
| 4. 가옥구조 | 8. 기타 |

한 지역의 방언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지리적인 장벽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제주도는 그러한 점에서 좋은 보기가 된다. 제주도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육지와 고립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전기를 맞는다.

역사적 큰 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고려말에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삼별초군과 그 식솔들이 제주도에 들어와 몽고에 대항하여 싸운 것, 97년 동안이나 몽고가 제주도를 지배한 것,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피난민이 들어온 것들을 꼽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로 이동해 온 사실들은 단순한 인구 이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변화에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제주도 말은 고대의 어느 시기부터 점차로 한국말 체계로 바뀌다가 삼별초의 항쟁 때에 군사와 그 식솔들한테서 큰 영향을 받아 지금도 강화도와 황해도 지방의 방언 요소의 흔적을 수집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뒤로 이곳이 몽고의 땅이 되어 몽고의 목호들이 이곳에 들어와 오랫동안 살고 그들과 이곳 주민들과 혼인이 장려됨으로써 그들

의 품물 뿐 아니라. 그 언어의 여러 특징들이 배어들게 되었다. 또, 식민지 시대에는 제주도가 일본과 거리가 가까워서 쉽게 오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일본말의 영향이 꽤 강하게 전파되었다. 또 해방 뒤에 바뀌기 시작한 제주도 말의 특성도 많다. 4·3 사건의 비극으로 육지에서 토벌군이 밀어닥쳤고 이어서 6.25전쟁으로 십오만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신천리 마을의 방언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주도 방언과 흡사하였고 바닷가에서 쓰는 방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1. 동물명

방언형	표준어
도새기	돼지
똥소래기	독수리
강생이	강아지
몽생이	망아지
빙애기	병아리
생이	새
노리	노루
고냉이	고양이
베엠	뱀
송애기	송아지
지냉이	지내
쇠	쇠
말	말
닭	닭

2. 해산물

<u>방언형</u>	<u>표준어</u>
멍지	멍게
몽계	문어
고동	소라
우미	우뭇가사리
메역	미역
톨	톳

3. 가족 호칭

<u>방언형</u>	<u>표준어</u>
씨아방	시아버지
씨어멍	시어머니
씨아주방	남편의 형제
족은아덜	작은아들
메누리	며느리
예펜	여편네
비바리	처녀
출랍생이	남의 말에 잘 끼어드는 성급한 사람
두가시	부부
퀘당	친척
셋아방	둘째아버지
역은아방	셋째아버지
말젯아방	작은아버지

가시어멍	장모님
가시아방	장인어른
하르방	할아버지
할망	할머니
오라방	오빠

4. 가옥 구조

<u>방언형</u>	<u>표준어</u>
상방	마루
고팡	곡간
정지, 정제	부엌
낭간	난간
알력거리	아랫쪽 집
우녀거리	윗쪽 집
올래	집앞 길
올랫거리	올래와 가까운 집
쇠막	외양간
불치막	거름을 넣어두는 작은 집
통새, 뒷간, 통시	화장실

5. 기구명(농기구, 가재도구)

<u>방언형</u>	<u>표준어</u>
낭푼이	양푼
푸체	키

얼맹이
 솔박
 되약새기
 비치락
 고새
 남방에
 남송애기
 골괭이, 골괭지
 남죽
 저분
 수제
 두룽박
 솔박(大), 되박새기(小)
 사발

대나무로 엮은 굵은 체
 나무를 타원형으로 파낸 되
 솔박 보다 작은 되
 빗자루
 가위
 나무로 만든 절구
 흙을 파는 대패
 호미
 밭자
 첫가락
 손가락
 태왁
 함지박
 밥그릇

6. 상 태

방언형

멘도롱하다
 뜻뜻하다
 얼다
 검스롱하다
 가무롱하다, 감시롱하다
 시커멍하다
 빨경하다
 불그스름하다
 싯빨경하다

표준어

미지근하다
 따뜻하다
 춥다
 거무스레하다
 까무스름하다
 새까맣다
 빨갳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코시롱 ㅎ다	고소하다
쿠시롱 ㅎ다	구수하다
맹심히	조심히
거멍	검정
허영	하양
퍼렁	파랑

7. 의 복

<u>방언형</u>	<u>표준어</u>
갈옷	갈물을 들인 옷
갈적삼	뜻감으로 물들인 윗저고리
갈정뱅이, 갈중이	뜻감으로 물들인 바지
가죽감티	가죽으로 만든 모자
중이	여자바지
적삼	저고리
중이 적삼	고의와 적삼
남신	나막신
창옷	홀두루마기
정뱅이	바지

8. 기 타

<u>방언형</u>	<u>표준어</u>
지실	감자
모물	메밀

굴묵낭	느티나무
폭낭	팽나무
놈뻘	무우
노물	채소
조반	아침식사
저녁	저녁
강낭대축	옥수수
바당	바다
노물	배추
식개	제사
셋빚름	동풍
마팍름	서풍

民 謠

차 례

1. 검질 메는 소리
2. ㄱ레 ㄱ는 소리
3. 방에 짚는 소리
4. 뱃노래(이여도 사나)
5. 마당질소리(도깨질소리)
6. 아기 채우는(구덕 흥그는) 소리
7. 밭 불리는 소리
8. 밭 메는 소리
9. 이여도 사나, ㄱ레 ㄱ는 소리, 방에 짚는 소리

작년 가시리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이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며, 할머니들의 경우 대부분 해녀이거나 해녀 경험이 있어 <이여도 사나>(네 젓는 소리, 뱃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들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인지 중산간 마을에서 들을 수 있는 <밭 불리는 소리>나 <출 비는 소리> 등은 듣기 힘들었다.

- * 제보자①: 문옥순 할머니(71세) 24세때 신천리로 시집을 오심.
- * 채록 민요: 검질 메는 소리, ㄱ레 ㄱ는 소리, 방에 짚는 소리, 뱃노래(이여도사나), 구덕 흥그는 소리

*제보자② : 고순옥 할머니(80세), 정인금 할머니(73세). 모두 신천리 태생이시며 정인금 할머니는 강원도에서 10년간 물질한 경험이 있음.

*채록 민요: 이여도사나, 마당질소리(도깨질소리), ㄹ레 ㄹ는 소리, 방에짚는 소리, 아기 재우는 소리, 밧 불리는 소리

*제보자③ : 현공희, 현공옥 할머니.(자매, 79, 78 세)

*채록 민요: 네 젖는 소리, 이여도 사나, ㄹ레 ㄹ는 소리, 방에 는 소리

*제보자 ④: 김임순 할머니 (65 세)

해녀의 집에서 채록, 여러 명의 해녀 할머니들이 있어 소음과 잡음이 많아 청취하기 어려웠음.

*채록 민요: 이여도사나, 밧 메는 소리, 애기 흥그는 소리

1. 검질 메는 소리

검질 짓고 골 넓은 밧에
고운 세로 여이여 간다
어-허어야- 에헤용-에요-
앞명에나 들어낭 오라
뒷명에랑 나고나 가라
아-하아야- 에헤용- 헤에요-

<제보자: 문옥순 (여·71세) >

2. ㄹ레 ㄹ는 소리

① 이여이여 이여도 ㄹ레

요 보리 곶아사 저녁 해영 먹곡
아이덜이영 밥 헤여 먹으컬
이여도 ㄹ레 이여도 ㄹ레

〈제보자: 문옥순 (여·71세)〉

②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아--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아--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아--

〈제보자 : 고순옥 (여·80세), 정인금 (여·73세).〉

3. 방에짚는 소리

① 이여방에 -

가시오름 강대장 칩이
세쿨방에 세 글럼서라
우리 성제 삼 성제 가난
다섯 고리 세 맞아진다
이여도 방에- 이여도방에-
이여방에- 이여도 허라- 이여도허라-
세쿨방에 세 글럼서라
우리 성제 삼 성제 가난
다섯 고리 세 맞아져라

하늬 림 하서방 칩이
새쿨방에 세 글럼선에
우리 성제 삼 성제 가난
다섯 고리 세 맞아져라

〈제보자: 문옥순 (여·71세)〉

- ②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요 방에 지영 밥 혜영 먹엉
요 보리 지영 밥 혜영 먹엉
이여도 허라 이여도 허라

〈제보자 : 고순옥 (여·80세), 정인금 (여·73세)〉

4. 뱃노래(이여도사나)

- ① 이여싸 - 이여싸- 이여싸-
우리 배는 솔나무 뱃데
잘잘 가는 솔나무 배야
잘잘 가는 잣나무 배야
요 널 짓엉 어덜 가코
진도 바당 한골로 가서
매역이나 헤어나 보자
매역 좋은 여 곳으로
고등 많은 여 곳으로 돌아나가자
이여도사- 이여도사나- 이여도 사나-
요 널 짓어 어덜 가리
진도나 바당 글로만 가자

〈제보자: 문옥순 (여·71세)〉

② (메기고 받는 형식. 때문에 청취에 어려움이 다소 있음)

이여도 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어기여라- 어기여라- 어기여라-
 쳐라 쳐 (쳐라 배겨) 이어라 쳐라(쳐라 쳐라)
 훈 묵이랑 (훈 묵이랑) 지구나 가자 (지구나 가자, 이여사)
 훈 묵이랑 몰고 가자(훈 묵이랑)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어기여라)
 이목 저목 (어기야) 어떤 고기나(이여사) 어기여라
 곡지 알아사 허드니와 (이여사) 이여사 (어기여라)
 이여사나(어기여라) 이여도 사나
 우리 어멍 날 날적이 (날 날적이)
 어느 바당 ○○○○(청취불능) 이여도 사나 (쳐라 쳐) 어기여사
 요목 저목 (요목 저목) 어라 고기 들어온다 (이여사)
 훈 묵이랑 (이여사) 지구나 가라 (이여도 사나)
 훈 묵이랑 (이여사) 물구 가자
 요 물 아래 (이여사) 생복 고동 (이여사)
 많이 서도 (이여사) 저픈 일 바뀐 (이여사)
 못 허키여 (못 허키여)
 이여도 사나 (이여도사) ○○(청취불능)허영
 땡든 어멍 (어기여라) 약 봉양두 (어기여라)
 험도 허자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제보자 : 고순옥(여·80세), 정인금(여·73세)〉

③ 이여싸-이여싸-어어- 이여사나- 에이-

우리야 (청취불능) 살 곳이 없어
 대마도 한강 바당 물질가고
 일천 고생 다 헤여 가건(청취불능)
 자식놈덜 공부 시기곡 (청취불능)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올로 뱅뱅 돌아진 섬에
삼시 굶영 물질 허영
훈 푼 두 푼 모다논 금전
서방님 술 값에 다 들어간다.
이여사나 이여사나 이여도 사나
요 물 아래 (청취불능)그물 걸려서도
높은 낭기 열매로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요 넝 저영 나 어디 가리
진도야 바당 한글로 가자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옛날 옛적 제주도 섬에
고난해연 대마도로
돈 벌이 가곡 이여도사나
대마도 가서 돈 벌어당
자식놈덜 공부 시기곡
서방님덜 술값 헤여도
허사로구나 허사로구나
이여도 사나 잘도간다
쳐라 배겨라(잘도 간다)
지고 가자 (한 머루랑)
놓고 가자 (쳐라 쳐라)

〈제보자: 김임순 (여·65세)〉

- ④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요 넝 지곡--어디로 가나---
진도야 바당-- 한글로 가자 쳐라 쳐라
요네 팬드레 이끌어 지면

부산항구 ○○ 노가 없실소나
요네 배창 부러나 지면
부산 항구 배가 없실 소나
쳐라 쳐라 잘도야 간다 아주 간다
생복 고동 좋은 딜로
앞 발르곡 뒤 발르곡
우리야 배에 선왕님아
질 발라 주소- 쳐라쳐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잘 넘어 간다 이여도 사나
요 바당에 물질을 허곡
돈을 벌엉 어느 하루 아착
술 한잔을 값을 헐까
뫼을 해야 살 것인고 이여도 사나
돈도 좋고 복장도 존 놈
날드라 가라 요놈들아
이여도사나 쳐라쳐
살만 허난 돈도 엇곡 서루도 엇곡
어디로 가면 즐 것이나
이여도쳐라 쳐라 쳐

〈제보자 : 현공희, 현공옥(자매, 여·79, 78세)〉

5. 마당질 소리(도깨질소리)

에야 흥- 어야 흥-(어야도 흥) 어야 흥-(어이야 흥)
요묵 저묵떠려 보라 므루 므루 상므루요 요묵 떠려보자
(제보자: “도깨 심엉 들어상은 허주마는 기억이 어선 못허키여...”)

〈제보자 : 고순옥 (여·80세), 정인금 (여·73세)〉

6. 아기 재우는(구덕 흥그는) 소리

- ① 윙이 자랑 윙이나 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윙이 윙이 윙이 윙이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는 건 줌이요
노는 건 늣이로다
윙이 자랑 윙이 자랑
할마님 즈순(자손) 재워 줌서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제보자: 문옥순 (여·71세)〉

- ②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윙이 자랑 윙이 자랑
윙이 자랑 윙이 자랑
올지 말라 올지 말앙
이 젓 먹엉 어서 자라
아니 자민 총총 베로 걸려 가라
디꿈 디꿈 천지 소리
떨어졌당 ○○○○(칭취불능)
어서 자랑 자랑 자랑 윙이 자랑
윙이 윙이 윙이 윙이 윙이
우리 애기 자는 소리

눔이 애기 노는 소리
어서 자랑 어서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어서 자라

〈제보자 : 고순옥 (여·80세), 정인금 (여·73세)〉

③ (부표같은 물질 도구를 구덕 삼아 흔들며 노래).

윙이 자랑 윙이 자랑
윙이 자랑 자랑 자랑
우리 애기 재와 도라
느네 애기 재와 주마
아니 재와 주민 총총 베로
(칭치불능) 할로구나
자랑 자랑 윙이도 자랑아
애기야 흔저 자라
어멍은 일 헤사 살거다
윙이 자랑 윙이 자랑
“흔저 자라!! 아기두 윈!!”
자랑 자랑 윙이 자랑
자랑 자랑 윙이 자랑
자랑 자랑 윙이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우리 금동개도 잘도 잔다
은동개도 잘도 잔다
윙이 자랑 자랑 자랑
윙이도 자랑아
“아이구 애기도 윈 흔저 자라게!!
흔저 자사 밧디 가사 헐 거 아냐! 에에, 자라!”

〈제보자: 김임순(여·65세)〉

7. 밧 불리는 소리

어----어----어려어려-----
어----어----어려어려-----
(제보자: “몽텅이 가정 휘- 들르멍 해사주”)
어----려어---덜덜--
요물덜아- 어드레 감이니에---
고비 꺾으멍 아래 저래
에이에에---헤이에---
아래 오라 그래 가민
어려---덜덜---
어려 어려 어려 어려
어--어----려---
어려----러러려---
어-----려----덜덜---
어려 어려 어려 어려
어----어려려어---
어----허- 덜덜----
요물덜아 어디 감시니---
보근 보근 불라나 지라
허러러----어려---
어려----어려---
어---려어---덜덜--

〈제보자 : 고순옥 (여 · 80세), 정인금 (여 · 73세)〉

8. 밧 메는 소리

아-----아아양- 에헤야양-----어---요--(후렴구)

앞 멩에야 들어나 오라

아-----아아양- 에헤야양-----어---요--

뒷 멩에야 나고나 가라-

아-----아아양- 에헤야양-----어---요--

검질 짓곡 골 넓은 밧디

아-----아아양- 에헤야양-----어---요--

검질 버친 놀디로 구나

아-----아아양- 에헤야양-----어---요--

〈제보자: 김임순 (여·65세)〉

9. 이여도 사나, ㄹ레 ㄹ는 소리, 방에 짙는 소리

(이야기 중간에 노래가 나오므로 함께 실었음)

제보자: 바다에 물질 헐 때, 두룽박 허고 바다 영 세어갈 때 물에 들멍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차라 차'. 옛날에는 이런 두룽박을 해서 이런 가상에 안 들고 바당 한 가운데 히어가. 경행 그래 히어 가민 줄줄이, 영이 새들 영 보민 줄줄이 히어 가지 이, 새 ㄹ쭈룩 막 히어가. 히어 가민 글로 히어 가그네 딱 벌어져그네 무리질을 헝 나오주게. 경 행 무리질을 헝

나오민 그뻘 소리가 많이 이서.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니네야 배는 잘도 간다

우리야 배는 잘도 못 간다
생복고동 좋은딜로 가자
앞 발르고 뒤 발라 주소.
좋은 디, 생복고동 하연 딜로 가서 '돈 벌게 해여주시오'
영 헤그네 불르멍 영 막 네 젓어가명도 젓곡, 그 네찰을
영 행 영 영 젓주게. 풍선(風船)잇잖아. 저, 영 육지 가 보
민 영 땀마가추룩 헨거 영 너부작한 배 헤영 그런 배 타그
네 물질을 헤 낫지. 야- 바당으로 몰아오는 절이 무섭다..
옛날엔 하루 종일 가그네 막 밧을 메지, 밧. 밧을 메민,
보리 강 거 보리 알지이? 보리 그라그네이 그거 옛날엔
는 이런 큰, 민속촌에 강 보민 영 그레 둥그리는 것 잇지
이, 그런 것에서 영 굴앙, 또 집이 오랑 널영. 그거 물류
왕 다시 정그레 요맨- 헨 거 잇지, 그걸로 그 쓸을 독독
독독 허게 두나에 불르멍, 이런 대걸름체엔 헨 거, 대걸름
체로 영영영영 쳐그네 그 큰거는 또시 굴곡 벌러진 거는
그 아래 놓곡 헤그네 그걸 또 줌진체로 쳐가. 그 보리
을 해서 우리가 밥을 헤 먹엇지이.

조사자: 쪼개어그네 예...

제보자: 응, 쪼개그네. 그걸 밥을 헤 먹영 흐루 저물어 강 일허민
저 댓박 잇지이, 댓박 그거 댓박 하나. 흐루 저물영 일허
민. 게민 세 식구 사는디 흐루뿐이 못 살아. 옛날에는 그
추룩 해도 살앗지. 돈을 아무리 그정 강 쓸을 풀아 득렌
해도 안 풀아줘.

조사자: "거문 그 때 불리 멩 헨 노래도 이실 꺼 아니꽈 예?"

제보자: 이여도 ㄹ레---여기여
이여--동 허라 이여---도 방에
그거주게. 방에 ㄹ는 건
이여 이여 이여 도동 허라
이여도 방에 이여 이여 이여
세쿨름 짓는 거.
세쿨방에도 세가 있져
이여, 이여도동 허라, 이여방에..

〈제보자 : 현공회, 현공옥 (자매: 79, 78세)〉

說 話

차 례

1. 천미연대와 오누이이야기
2. 용궁올레(용올레)와 칼선도리(칼도리)이야기
3. 오백이터 할망과 하르방이야기

설화는 노래가 아닌 말로 전승되어 오는 옛날 이야기이다. 특정 문화 집단이나 민족, 각 기 다른 문화권 속에서 구전되는 이야기를 통틀어 일컫는다. 한 문화 집단의 생활, 감정, 풍습, 신념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설화는 기본적으로 구조화된 이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설화가 서사물, 즉 소설의 모태라는 판단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설화의 하위 부류를 대체로 신화, 전설, 민담으로 분류하는 것이 통례화되어 있으나, 학자에 따라서는 설화와 민담을 동일시하거나 민담을 다른 개념의 상위 개념으로 두기도 한다. 그러나 설화가 말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다른 세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모든 옛날 이야기가 다 설화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옛이야기 중에서 일상적인 잡담이나 역사적 사실 등은 문학성이 없는 것이므로 설화가 아니다. 잡담은 일정한 구조가 없고, 역사적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학적 상징성을 지니면서 서

사 문학의 근원이 된다

설촌된지 400년이 된 이 마을에는 서면으로 조사한 바로는 여러 가지 설화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이야기를 알만한 세대들이 이미 사라져버린 뒤라 몇 안되는 얘기들만이 구전되고 있었다. 천미연대와 오누이 얘기가 가장 널리 알려진 얘기이며 그 뒤를 잇는 것이 용궁올래와 칼선도리 얘기, 다음이 고조방장 순이다. 전사작업을 하면서 구비문학의 기록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1. 천미연대와 오누이

천미연대는 통신수단이 없던 시절 봉화를 올리던 곳으로 마을 중심에 위치해 있다. 연대로부터 50미터 앞에 현씨당이라는 곳이 있다. 이 설화는 이 곳에 얽힌 이야기인데 한 마을에서도 각기 다르게 전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 * 옛날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오빠(또는 남동생)가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동생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인 천미연대에 올라가 오빠를 기다리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 자리에 묘를 세운 것이 지금의 현씨당이며 이곳에서 어부들은 바다를 나가기 전에 기원을 한다고 한다.

〈제보자 : 현수택 (남·63세)〉

- * 신천리에 사는 현씨 처녀는 어부인 오빠와 함께 살면서 무당의 일을 하였다. 어느날 오빠가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심한 풍당으로 불귀의 객이 되어 버렸다. 이를 안 현씨 처녀는 너무 슬피울다가 그 마을에 있는 봉수대(烽燧臺)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말았다. 이를 안 현씨들은 이 처녀의 원통한 혼령을 달래기 위해

이 처녀를 자기들의 '조상신'으로 모셨었다. 그러다가 점차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이 마을의 '당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특히 당 옆에는 여태 그 처녀 무덤이 남아있다.

〈제보자 : 오영홍 (남·75)〉

* 옛날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돈을 벌러 바다로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 그만 죽고 말았다. 오빠가 떠나기전 동생에게 무당질이라도 하며 연명하고 했는데 부모가 없던 동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천미연대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현씨당이다. 현씨는 원래 무당이였다.

〈제보자 : 현정열 (여·75세)〉

2. 용궁올레(용올레)와 칼선도리(칼도리)

신평리 경 해안에는 용궁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불리는 '용궁올레'가 바다 속에 있다. 또, 이 해변에는 용의 머리처럼 생긴 기암괴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용머리'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남해용궁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 물 속이 매우 깊을 뿐 아니라 용궁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하여 신성시해왔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해녀들도 그 곳만은 함부로 범하지 못해왔다.

그런데, 옛날 이 마을에 송씨 해녀만은 '용궁올레'에 가서 많은 해산물을 채취해 왔다. 어느날 송씨 해녀가 용궁올레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깊은 바다에 큰 전복 하나가 보였다. 숨이 모자라서 따오지 못할 것 같았지만 욕심을 내어 전복을 따려 했는데 그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휘황찬란한게 용궁처럼 보였다.

송씨 해녀가 사방을 둘러보는데 어여쁜 미녀가 다가와 여긴 인간

들이 올곳이 아니니 빨리 돌아가라 하자 인간세상으로 돌아가는 중 용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뒤돌아 본 순간 용궁 수문장이 나타났다. 송씨 해녀를 죽이려 했으나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자 늙은 부모가 있다기에 보내준다고 빨리 나가라고 했다. 용궁에서 나와 보니, 바로 전복을 캐려던 '용궁올레'였다.

송씨 해녀가 용궁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져 그 뒤로는 여기가 바로 용궁으로 가는 대문이라 하여 '용궁올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용궁올레 바로 옆 물 위에는 10여 m 정도의 우뚝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모양이 칼이 선 듯하다고 해서 '칼선다리'라고 한다. 이것은 남해용궁에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막아 놓은 다리라는 것이다.

〈제보자 : 현정열 (여·75세)〉

3. 오백이터 할망과 하르방

옛날 '오백이터'라고 하는 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힘이 대단했기 때문에 노부부 사이에 싸움판이 벌어질 경우면 할아버지는 늘 꼼짝없이 당하기만 했다. 그러나 기지가 뛰어나 그 위기를 잘 모면해 내곤 했다.

어느 날 노부부 사이에는 부엌에서 싸움판이 벌어졌다. 역시 다른 때나 다름없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꼼짝 못하고 얻어맞을 판이었다. 마침 동네 아주머니가 무슨 불 일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왔다. 할아버지 입장에선 이만저만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할머니에게 얻어맞고만 있던 할아버지는 동네 아주머니가 부엌을 기웃거리자 손으로 상투를 툭툭 털며 부엌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실컷 얻어맞고도 때린 듯이나 큰소리치는 것이었다.

“저런 년은 저렇게 해야 버릇을 고치지!”

그렇게 해서 할머니에게 얻어맞고서도 순간적인 기지로 창피를 잘 모면했다.

어느날 노부부는 마당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부아가 난 할머니는 할아버지 허리를 확 휘어감더니, 그만 지붕으로 내던져 버렸다.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했다. 그 집 앞을 지나던 동네 사람 여럿이 뻘히 쳐다보고 있는게 아닌가. 이만저만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두리번 거리고 있던 할아버지는 지붕 위에 영근 호박이 보였다.

쳐다보고만 있던 동네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지붕 위에서 얼떨거리며 서 있는 할아버지에게,

“어째서 거길 올라가셨습니까?”

“호박따러.”

이렇게 할아버지는 창피스러운 순간을 기지로 잘 모면했다.

그 할아버지는 일정(日政)초까지 이 마을에 살았었는데, 그의 기지에 일본놈도 꿈쩍없이 당했던 적이 있었다.

일본놈들은 쌀 공출을 제대로 받아가기 위하여 절대 술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오백이터” 할아버지는 일본인들의 눈을 피하여 술독을 담았는데, 술익은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이 마을에 술 조사하는 일경(日警)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울안 대밭으로 술독을 숨기기 위하여 옮기는 도중에 그만 마당 가운데서 들키고 말았다.

“하, 참 잘 오셨습니다. 나는 미리 조사 오기 전에 자수해서 벌금을 받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힘겹게 술독을 마당으로 옮겨 놓았는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옮겨 놓고 이제 막 자수하려 가려고 하는 참인데, 뭐하러 이까지 오셨습니까?”

일경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마침 옆에 있는 통역관에게 물었다.

“저 노인이 뭐라고 지껄이느냐?”

통역관은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일경에게 들려줬다.

그 말을 들은 일경은 “허허” 웃고 말았다.

“다시는 술을 담지 말라고 전하되, 이번만은 벌금도 받지 않겠다고 전해라.”

그래서 오백이터 할아버지는 순간적인 기지로 술도 안 뺏겼을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내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한 적이 있다 한다.

〈제보자 : 오영홍 (남·75)〉

이 이야기는 아마도 예부터 국립목장으로 이용되던 신천리의 수렵적 풍모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말과 관련해 말 잘타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대했으나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信 仰

— 차 례 —

- | | |
|----------|----------|
| 1. 공인 종교 | 3. 민간 신앙 |
| 2. 마을 신앙 | |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에서의 공인종교로는 유일하게 불교만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절이 만들어진 게 5개월 정도로 신도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주민은 약8세대 정도 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민간신앙을 갖고 있었다.

신천리의 민간신앙은 심방이 10년전에 돌아가시고 노인분들이 적어서 정확히 그 유래와 방법을 아는 분이 적었고 마을 주민들마다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큰 당으로 고척당(고찌당·고씨당)을 중심으로 현씨당, 요드렛당, 일렛당을 중심으로 민간신앙이 이루어졌다.

1. 공인 종교

앞서 말했듯이 신천리에 존재하는 공인종교로는 불교밖에 없고 나머지는 마을 안에 없었다.

5개월 정도 전에 만들어진 법천사라는 절이 존재한다. 법천사는 풍천초등학교에서 150m정도 위에 위치해 있으며 신도수는 80세대

정도라고 한다. 아직 생긴지 얼마 안돼서 신천리 주민들 보다는 다른 마을 사람들(주지스님과 친분이 있는)이 더 많다고 한다. 다만 다른 지방에 있는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주민들은 약 8세대 정도 있었다.

2. 마을 신앙

1) 포제(유식제)

신천리에서는 1월 정일과 해일에 고춧당을 시작으로 현씨당·동요탄집·서해찬집을 돌면서 제를 지낸다.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포제를 지낸다.

- (1) 제명: 포제
- (2) 제신: 고춧당(용녀부인), 현씨당(처녀신), 동요탄집(돼지신), 서해탄집(뱀신)
- (3) 제일: 음력 정월 초에 지낸다.
- (4) 제장: '고춧당'에서 제를 지낸다. 그리고 나머지 당을 돌면서 지낸다.
- (5) 제비: 마을에서 공동부담한다.
- (6) 제관: 박정희 정권 이후 간소히 하라고 해서 13명 정도에서 초헌관, 아헌관 증헌관, 집사 2명으로 줄었다.
- (7) 제물
 - ① 메(밥), 갯 4그릇(고춧당할아버지의 부인이 3명)
 - ② 채소류: 미나리, 정구지, 무채
 - ③ 해어: 비늘있는 고기를 사용
 - ④ 어패류: 전복

⑤ 과실: 꽃감, 배, 사과, 밤, 대추, 밀감

⑥ 폐백: 소지종이

⑦ 육류: 소고기, 닭고기(암닭 8마리)

(8) 금기

· 3일 정성: 3일동안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 제관과 제물을 만드는 사람이 같이 일종의 합숙을 한다.(→몸을 깨끗이 한다.)

· 돼지고기는 제에 안쓴다.(물론 먹지도 않는다.)

(9) 행제, 예조 음복, 본향당 참배, 유래

2) 당신앙

(1) 고춧당(고찌당·고씨당)

-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천미천 하구 하천리와외의 경계

신천리 '고춧당'의 당신은 '용녀부인'이라고도 하고, '할아버지신'이라고도 한다. 음력 1월 정일과 해일에 당제를 하며, 신천리에서 가장 큰 신으로 믿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당제를 지낸다. 당신의 기능은 어부, 해녀의 안전을 기하는 것이고, 당은 넓은 반석에 시멘트를 바른 제단 한 가운데 구멍이 있는 해변형·석원형·제단형이다. 신천리 주민들 전부가 다닌다. 제물로는 소고기, 닭고기, 비늘 있는 어패류 등을 올린다.

① 위치: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천미천 하구 하천리와외의 경계

② 당신(堂神): 용녀부인

③ 제일(祭日): 1월 정일과 해일

④ 형태(形態): 넓은 반석에 시멘트를 바른 제단 한 가운데 구멍이 있다.

⑤ 제물: 돼지고기를 제외한 소고기·닭고기·비늘 있는 어패류 등을 올린다.

→ 여신은 돼지고기를 싫어해서 금기시 했다.

- ⑥ 기능: 신천리 주민 전부가 다니는데 어부·해녀의 안전 외에 각종 기원을 올린다.

(2) 현씨당(가름한집)

- ① 위치: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안카름 연대 부근
- ② 당신(堂神): 처녀신
- ③ 제일(祭日): 1월 정일과 해일에 지냄
- ④ 형태(形態): 산목에 치마를 입혀 신체를 삼고 있는 신의형·수림형·전답형·신목형·제단형·석원형의 당이다.
- ⑤ 제물: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비늘 있는 어패류 등을 올린다.
- ⑥ 기능: 어부들의 안전과 마을 평화를 기원한다.
- ⑦ 유래: 처녀당의 일종의 현씨당은 신의 이름을 따서 현씨 일월당(日月堂)이라고 한다.

당 제일은 음력 1월 丁일과 해일이고, 당에 갈 때는 소고기, 닭고기, 비늘이 있는 어패류 등을 가지고 가 올린다. 당은 신천 연대 아래쪽에 있는데, 산목에 치마를 입혀 신체(神體)로 삼고 있는 신의형·수림형·전답형·신목형·제단형·석원형의 당이다. 주로 어부들의 안전을 기도하고 그 해 마을의 평화를 기원한다. 다시 말하면 온평리 '돌개'에는 현씨일월당과 돌개할망을 함께 모시고 있고, 그 앞쪽에는 묵은열운이에서 가지 갈라 온 토산당 요드렛당을 모시고 있다. '돌개 현씨일월당'은 신천리 '현씨일월당'을 갈라다 모신 당으로 신천리에서 시집온 사람들이 다닌다. 8일이나 18일에 다니는 여드렛당이지만 택일하여 가기도 한다. 이 신은 처녀 원령으로 환자에게 홀연 광증을 일으키게 한다. 현씨일월당 본풀이를 보면,

『현씨 일월 아끼씨가 우리 무냥으로 팔자 구전 나시나네, 굿을 해

도런 호난 곳을 호젠 해도 설쇄도 잊지. 연물이 어선 못호지, 못호게 되난, 오라방이 “설운 누이야, 나가 육지 가그네 석수(설쇄)영 연물 이영 다 행 오크매 이시랜” 호난, 오라방은 경헨 나가불고 “아이구, 우리 오라방 감구나” 헨 섭지에 올라 산 봐보난 오꼳 배 파산 행 설러불고 마썸. 우리 오라방은 배파산 행 죽어가는데 난 살앙 무시 것 호리 헨 연디 알로 간 빠전 죽어부러십주. 겐 죽어부나네 현씨 일월 산도 저디 이십주 이서, 연디 알로 간 빠전 죽어부런. 어느 것 엔 분이 아니 들어갈 수가 이수가.』

〈제보자 : 현금순(여·59세)〉

(3) 서해탄집

- ① 위치: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천미천 다리지나 동남쪽 소로 50m 소나무 숲
- ② 당신(堂神): 뱀신
- ③ 제일(祭日): 특별히 정해진 날이 없다.
- ④ 형태(形態): 수립형·제단형
- ⑤ 제물
- ⑥ 기능: 주민들의 치병을 기원할 때 찾아간다.
- ⑦ 유래: 토산에서 넘어왔다.

(4) 동요탄집(동잇한집)

- ① 위치: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마을회관 오른쪽 소나무 숲 속
- ② 당신(堂神): 돼지신
- ③ 제일(祭日): 특별히 정해진 날이 없다.
- ④ 형태(形態): 수립형·신목형·지전물색형·석원형
- ⑤ 제물: 집에서 돼지를 잡아서 지낸다.
- ⑥ 기능: 나무를 상하게 하거나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무당이 돼지를 잡아서 고시래를 하면 관찮아진다고 한다. 집에

서 돼지를 잡아서 집에서 제를 지내거나, 동요탄집에 가져가서 제를 지내는 두 가지 얘기가 있다. 오늘날에는 동요탄집과 서해탄집을 한곳에서 모아서 제를 지낸다고 한다.

3. 민간 신앙

1) 영등굿(좁수굿)

- ① 신정이 끝나면 준비를 해서 음력 2월 초하루와 13일에서 15일 사이에 한다.
- ② 예전에는 소를 잡아서 일주일 정도 성대하게 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돼지·닭만 잡아서 간소히 한다.
- ③ 축원(부락화제방지, 어부·해녀의 안녕, 양어장 번창)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돈짓제

- ①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한다.
- ② 표선·하천·신천리 할머니 3명이 주도로 행해진다.
- ③ 소주·과일등 제물은 간단히 차린다.
- ④ 어부들이 출항할 때 제를 지낸다.

3) 토신제·문전제 ; 개개인이 행한다.

4) 용왕제·풍어제 ; 주로 어촌계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지낸다.